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位)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12~14)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회의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에 관한 주님의 편지는 시대를 초월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뜻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 교훈하시는 메시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핵심 지표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교훈은 과거 교회사 뒤안길에 묻혀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를 깨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지요. 많은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 선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될까요?

세상의 책과는 달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믿고 행할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은 날 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원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이며 영이 사람의 주인으로서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혼 속에 영이 갇혀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못 입력된 비진리의 혼을 깨뜨려 나가는 만큼 영이 점점 성장해 온전히 회복됩니다(『영혼육』 참조).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혼을 깨뜨리고 영을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관절이란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된 부분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을 의미합니다. 틀은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비진리가 입력되어 만들어지지요. 틀에

관해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보기에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입력한 것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라 '자기 의'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스스로 옳다고 여긴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리에 맞지 않는 '자기 의'를 하나하나 발견하며 버려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자기 의'를 발견해 버리고자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 의'가 굳어지면서 '자기 틀'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틀'이란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굳어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성격 자체가 틀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지식, 교양, 취향, 습관, 행동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틀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대립될 때 마찰을 일으킵니다. 또한 자신이 옳다 하는 생각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기도 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 정죄하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라온 환경 가운데 어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자기 길을 개척해야 했던 사람이라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하나의 틀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융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틀이 있는 사람은 이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틀은 강하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의 말이나 권면을 자기 틀로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지요. 그러니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틀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 틀이 너무 강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틀이 있음을 인정하고 겸비한 자세로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틀이 깨뜨려집니다.

골수는 뼈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조직으로 몸에 혈액 세포를 공급합니다. 영적으로는 세미하면서도 깊게 뿌리박힌 죄악을 의미합니다. 뾰족 깊이 있는 골수와 같이 죄악의 뿌리도 사람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순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순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난·청년·배울·미리애]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